



國民植樹運動

會長 金 允 基

해마다 4月이던 植木日行事와 나무심기 「캠페인」이 펼쳐져서 國民植樹運動은 活氣를 띄게 된다.

植物園, 苗木場, 꽃집에서 거리의 路店商에 이르기까지 물오른 나무와 꽃을 내어 놓고 심어줄 主人을 기다리고 있어 植木日이 닥아오느라 한결 봄이 찾아 온 것을 느끼게 한다.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 집안에는 알맞게 有實樹나 觀賞樹가 있어야겠지만 나무만 있으면 山이라 할 수 있는지, 아무 나무나 집안에 들여다 심어도 좋은 것인지 생각해야 하겠고 심기도 하려니와 가꾸는 마음이 모자라지 않은가 싶다.

나무를 심지 않는다면 가꾸어줄 對象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무를 심는다」는데 執着한 나머지 「심어만 놓으면 그만」이란 생각이 저도 모르게 움트고 뿌리를 굳게 내린 것이나 아닌지 두렵다.

나무를 심는 마음이 國土를 살찌게하고 고장을 아름답게 하려는 뜻을 심는 것이라면 나무를 가꾸는 마음은 이 나라사랑의 뜻을 기르는 우리의 心性을 가꾸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國民植樹運動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캠페인」이 되는 한편 우리 風土에 알맞고 經濟性과 植樹效率의 면에서 큰 보람을 맛볼 수 있는 樹種選別과 植樹 및 管理라는 보다 높은 次元으로 發展되어야 한다.

國立公園運動도 自然資源의 保全繼承과 그 合理的인 利用의 增大라는 目的이 國土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 보람을 오래도록 많은 國民이 누리지니도록 하려는 國民運動이므로 國民植樹運動이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責務를 지고있을 뿐 아니라 그 成果를 極大化시킬 보다 무겁고 높은 次元의 重責을 遂行하기 위하여 國民植樹運動이 「심고」 「가꾸고」 「보람을 얻는」運動이 되기를 期待한다.